

북극권 LNG 공장 9월 가동

Statoil, 생산능력 570만SCM ... 세계 석유기업 참여 프로젝트 일환

세계 최초의 북극권 액화천연가스(LNG) 공장이 9월 후반 가동된다고 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 Statoil이 9월 18일 발표했다.

Statoil은 노르웨이 북쪽 끝 북극권 바렌츠 해역 멜코에야섬의 LNG 공장에서 선적하기위해 대형 LNG 운반선이 9월18일 정박했다면서 9월22일경 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적되는 14만5000톤의 LNG가 Statoil의 주요 수출선인 스페인으로 갈지, 아니면 미국에 공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 북극권 공장에서 570만SCM(스탠더드 큐빅 미터)의 LNG가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최초의 LNG 공장은 Statoil이 주도해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Total과 Gaz de France 및 미국 석유기업 Hess, 그리고 독일 에너지기업 RWE가 참여해 추진해온 100억달러 수준의 스노에빗 프로젝트 일환이다.

한편, 러시아도 바렌츠 해역에서 국영가스기업 Gazprom이 주도하는 가운데 Total 등이 참여하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9>